

AUTHOR 황창기

TITLE 개혁주의 종말론 이해의 새로운 전형
-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기초한 개혁주의
종말론을 지향하며 -

IN 고신신학
vol.1 (가을, 1999): 11-48

아니라 모든 학문의 성경적 정초를 놓는 일이므로 가장 중요한 학문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오늘날 대학안 밖에서 대학을 'multiversity' 라고 자조내지 비판하는 것에 대해 'university' 의 'uni' 에 해당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신학은 기독교 대학에서 모든 학문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통합하고, 그 학문의 기초와 방향, 구조와 목적을 일관성있게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봉사의 기능중에서도 신학적인 봉사는 단연코 가장 근본적인 것이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고신대학교의 신학과 교수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기독교 교육과, 선교언어학과등에 계신 신학 관련 교수님들이 함께 「고신신학」을 펴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학문의 통합 기능과 교회에 대한 신학적 봉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당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며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가일층 한국교회와 세계 신학계에도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펼치는 중요한 무대요 장(場)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이 「고신신학」은 고신신학의 충실한 대변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창간호의 발간은 고신교단의 신학사 및 교회사는 물론 한국 신학계와 세계 신학계의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작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연구하므로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제시하므로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고신신학」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무엇보다 이 일을 계획하고 이룩한 신학과 교수님들과 후원한 대학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모든 작업을 진행한 편집 책임자인 전광식 박사님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Soli Deo Gloria !

개혁주의 종말론 이해의 새로운 전형

A New Paradigm for an Understanding of the Reformed Eschatology

-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기초한 개혁주의 종말론을 지향하며 -

Towards a New Paradigm on the Reformed Eschatology with Reference to the Person of Jesus Christ

황 창 기 교수

Prof. Dr. Chang - Kee Hwang

- I. 서론
- II.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특성
 - 1. 복음의 본질적 특성
 - 2. 그리스도의 온 교회적 인격
 - 3. 그리스도의 판타(만유)적 인격
- III. 종말론적 화목의 변혁
 - 1. 성도(개인 및 전체)의 종말론적 변혁
 - 2. 만유의 종말론적 변혁
 - 3. 새 세상(천국)으로의 변혁
- IV. 결론

Abstracts

The heart of eschatology(including God's Kingdom, as shown here), is not a question of 'when' or 'what' but a question of 'who', It is not a schedule or a plan but the Person of Jesus Christ. Having assumed His divinity and humanity the Person of our Lord Jesus Christ represents both the whole Church and Panta(all).

Representing the whole Church(invisible Church), the people of Christ also died with Him and rose again with Him(Eph.2:6). Likewise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has already transformed Panta(all) beyond the cosmic scope. Thus, His death and resurrection indicate that the Old creation, this Age, has passed away; the New creation, the Age to come, has seen its inauguration in Christ.

While the redemption accomplished by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has already transformed His people as well as all things(panta), its Great Transformation has not yet been realized and will be only completed with His final Coming. Therefore,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and Jerusalem in A. D. 70 should be understood as the end of the old Jewish age, that is, the covenant Judgment of our Lord upon the fleshly Israelites in accordance with the destruction of His body, true Temple, on the Cross.

Christ's Exodus from Jerusalem(Lk.9:31) realized the Coming of His kingdom. The Church of the New Covenant now consists of God's people upon whom the ends of both Old and New order has already

arrived(1Cor. 10:11). With Christ's final Advent all(Panta)will be transformed into New Heavens and a New Earth. As such, the foundation and center of the Biblical eschatology is not a consideration of 'time', but the Person of Jesus Christ, who is the faithful Lord of His covenant.

With this in mind, it therefore becomes irrelevant for Christians to give unreasonable attention to worldly events, even to the things such as global disasters, to the point that we forget Jesus Christ is the only Lord of all(Panta). The second Millennium itself has nothing to do with us who are at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 이 논문은 1999년 10월 7일 제3회 환상동 기념강좌에서 발표한 논문임.

황창기, 부산사범대학, 고신대학 및 동 신학대학원을 거쳐 미국 Westminster 신학대학원에서 종교학 석사(MAR), 신학석사(Th.M.) 학위 취득. 남아 Potchefstroom대학에서 신학박사(Th.D.)학위를 취득. 현재 고신대 신약신학 교수로 재직. 저서로 「예수님교회 그리고 나」(성광문화사)의 다수

I. 서론

다가오는 2000년에 가까워지면서 Y2K로 표현되는 밀레니엄 버그¹⁾와 같은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니 많은 사람들이 지구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이 매우 깊은 것 같다. 이는 A.D. 2000년을 21세기, 또는 새 천년의 시작으로 보는 잘못된 정의²⁾와 함께 사회환경 및 미디어를 통하여 조장되는 막연한 불안감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즉 핵의 공포, 인구팽창, 기상이변, 환경오염에 대한 두려움, 우주 행성의 충돌의 가능성 등이 1999년에서 2천년으로 넘어가는 어떤 신비감과 맞물려 미래에 대한 부정적 예전을 낳으면서 진행되는 일종의 문화적 종말론이다.³⁾ 이러한 현상이 상업주의로 일관된 언론 및 방송매체들의 극적인 표현을 통하여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류를 반영하듯이 최근에는 크리스찬들의 종말론에 관한 관심도 부쩍 늘어난 것 같다. 그 일례로 미국의 어느 기독교 서점에서는 예언(prophecy) 분야 서적의 진열대가 역사(history) 분야 서적 진열대보다 2배나 크다고 한다.⁴⁾ 그런데도 이 예언 분야에는 목시적인 픽션 분야 도서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⁵⁾ 평신도를 위한 신학 대중지는 물론이고 신학전문

지도 이 분야를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의 *Christianity Today* 지(誌)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Christian History* 지(誌)는 지난 2월에 종말(The End)에 대한 특집호를 내었다. 이와같이 모든 출판사가 종말론이 이해되어 온 내력에 대하여 적어도 한 권씩 출판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⁶⁾

지금까지의 성경적-신학적 종말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주로 '때와 시간' 중심의 종말론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창조, 타락, 십자가의 구속, 재림을 직선적인 시간의 진행 쪽으로 이해하면서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에 대하여 신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경향이 매우 짙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가 다가오면서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한 집단가출 내지 자살소동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빚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적 종말론은 '때' 중심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Person) 중심이다. 종말론의 핵심은 어느 때(when), 어느 사건(what)에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예정(schedule)이나 계획(plan)에 있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Person)에 있다는 말이다. 특히 복음서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그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하기보다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연결시키고 있다.⁷⁾ 성경적 종말론은 언약적(covenantal) - 구속사적(redemptive

1) 현대 정보 지식을 주도하는 컴퓨터가 2000년 1월 1일을 잘못 인식함으로 발생할 지 모르는 대형 사고와 재난 및 갖가지 혼란 사태를 막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 및 기업체가 여러 해 전부터 대비해 오고 있으나, 막상 당도하여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불안해하고 있음.

2) 2000년을 새로운 천년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언론들의 성급한 조처로 보여진다. 1세기는 1년 1월 1일부터 100년까지이고, 2세기는 200년까지, 3세기, ... 10세기, 19세기는 1900년까지이다. 그렇다면 1901년부터 2000년까지는 20세기에 속한다. 21세기에 속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3) 문화적 종말론은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인간 문명에 대한 불신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83년 11월 20일 미국 ABC가 방송했던 '그날이후' (The Day After)와 같은 핵전쟁에 관한 것이나 '터미네이터'와 같이 핵전쟁 이후 기계문명에 의한 세계지배에 대한 것들이다. 둘째는 자연으로부터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다. '아마겔론', '딜 임팩트'와 같은 해성 충돌의 시나리오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외계인의 침공으로 인한 지구의 파멸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벤인블랙', '인디펜던스데이', '엑스파일', '화성으로부터의 침공'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허구적인 상상의 산물이지만 흥행에 성공하면, 비판능력이 없는 대중에게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게 된다. (강진구, "미디어와 종말론적 문화관" <한국기독신문> 1999년 7월 31일 참조.)

4) *Christian History*, issue 61, Feb 1999, p. 45.

5) Ibid. 그리고 다음 책에 대한 소식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Richard Kyle, *The Last Days Are Here*

Again, Fuller, Baker, 1998은 2000년 동안의 천년왕국에 대하여 기독교 및 세속적 견지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책; Indiana 주립대 교수들인 Robert Clouse, Robert Hosack, and Richard Pierard, *The New Millennium Manual*, Baker, 1999은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위한 목시론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특이한 점은 sexist movements에 관심을 많이 보임; Richard Abane, *End Time Visions*, Broadman and Homan, 1998, Russell Chandler, *Doomsday, Servant*, 1998는 좋은 역사서임; 2부로 꾸며진 *Millennial Madness*, Plain Truth, 1997은 종말에 대하여 지나치게 예민한 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비디오인데 사실 이 출판사는 목시론에 치중하는 the Worldwide Church of God의 소속이라는 점이 흥미로움; Notre Dame 역사가인 Bernard McGinn, *Antichrist*, Harper Collins, 1994는 신약부터 오늘날까지의 종말 시대의 사상에 대하여 특별히 훌륭한 책; 같은 저자의 *Visions of the End*, Columbia, 1998은 중세 목시론 학도들의 필독서; 또 다른 필독서인 Paul Boyer, *When Time Shall Be No More*, Harvard, 1992는 미국 문화에서의 예언 신앙의 역사서이나 초대, 중세, 문예부흥기 신앙도 다룸; 이와 비슷한 책으로 문화 역사가인 Robert 1500 페이지 3권으로 묶은 *Encyclopedia of Apocalypticism*, Continuum, 1998는 초대부터 현대의 대중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룬 글들을 수록.

6) Ibid. 또 다음과 같은 펜트로 잇는다. "The year 2000 is apparently a boon for historians of millennialism."

7) D. C. Allison, Jr. "Eschatology" In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eds. by J. B. Green, S. McKnight, I. H. Marshall,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2, p. 209.

historical) - 승리의 종말론(the eschatology of God's Victory)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따라 이루어진 변혁(변화)(transformation)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초림에 따라 '이미' 이루어졌으나 재림과 더불어 완전히 이루어질 온 세상의 대 변혁(Great Transformation of the cosmos)¹⁰⁾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역사성을 무시한다는 말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따른 변화에 맞추어 성도들과 이 세상에 일어난 종말론적 변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한다. 먼저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특성을 살펴보자.

II.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특성¹¹⁾

한 사람이 어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이룩한 업적과 그 영향들로 평가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Person)을 알기 위하여 먼저 그의 하신 일(Works)과 이로 인한 변혁의 영향을 살펴야 한다. 또 그분의 하신 일은 복음의 근본적인 특성과 이어진다.

8) 우리는 단순히 승리주의자(triumphalists)로서 기복신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적극적 사교방식의 '성공세미나'에서 말하는 처세술 위주의 신앙을 말하지 않는다. 참조, James Jordan, "An Antidote for Yuppie Postmillennialism", *Biblical Horizon*, 6, 1989, August, pp. 1-7.

9) James B. Jordan은 'transfiguration' 이라 하고, Peter J. Leithart는 'transformation' 이라고 함. 그러나 두 사람은 같은 의미로 쓰고 있음.

10) 우리는 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불타는 종말이 올 것으로 믿어 왔으나 벨후 33-13을 해석해 보면 변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의 자료는 Albert Wolters, "Living the Future Now: The Earthliness of Our Eschatological Task" ("현재 속의 미래적 삶: 종말론적 과업의 현재성"), 고신대학교 99-1 개강 학술강좌, 1999, pp. 1-52를 참조하라.

11) 황창기, 「예수님, 교회 그리고 나: 예수님의 인격에 비취 본 신앙의 구속사적 설교」, 서울: 성광문화사, 1998, pp. 17이하, 232이하, 268이하 참조.

1. 복음의 본질적 특성¹²⁾

우리의 논의를 고린도전서 15:1~5을 중심으로 시작하고자 하는데,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일로써 복음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전 15:3 이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

1)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고린도전서 15:1 이하에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과 그로 인한 변혁들을 설명하고 있다. 즉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신) ...' 일련의 사건들을(고전 15:3~5)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 규정한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복음이 '해석이 없는 4가지 동사'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여기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 '다시 사심', '보이심'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 여정(journey)으로 보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의 주제(journey motif)로 십자가를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4가지 사건을

12) 황창기, 「예수님, 교회 그리고 나: 예수님의 인격에 비취 본 신앙의 구속사적 설교」, 서울: 성광문화사, 1998, pp. 257-262 참조.

13) G. Machen, "What is the Gospel?", *The Union Seminary Review*, 38, 1927, p. 164.

기독론적 운동(Christological movement)의 일부로 본다는 말이다.¹⁴⁾ 그런데 이 4가지 사건은 그야말로 끔찍하고 두려우며 놀라운 사건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를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하니 이해하기 힘든 점 없지 않다.

2) 성도들의 영적 변혁

이 복음사건을 믿는 자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서며' ('in which also you stand'; 고전 15:1),¹⁵⁾ 또 이것을 전하는 사도들의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¹⁶⁾ 고 했다(고전 15:2). 이 말씀의 적용은 우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이고 그 다음에는 이 서신을 읽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영적인 변혁(transformation)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확실히 이 사건은 특수한 사건임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변혁은 종말론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종말론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그의 구속사역의 혜택들이 '이미' (already) 이루어졌으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아직' (yet)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not) 것을 말한다.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고 있으며, 나아가서 온전히 구원을 받을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¹⁷⁾ 이 변혁의 현재면을 예로 들어 말하자면, 우리가 주의 영(Spirit of the Lord)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일한 형상(image)으로 화해가는(are being transformed, 고후 3:17~18)¹⁸⁾ 구원사역

14) J. B. Green, "Death of Jesus", In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eds. by G. F. Hawthorne, R. P. Martin, D. G. Reid,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3, p. 162.

15) ενω και ειρηκατε(ιστη의 완료형).

16) δ'ι'ου και σωθε(현재형으로 '구원이 얻어진다'는 뜻).

17)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delivered) 또 건지시리라(does deliver) 또한 이 후에라도 건지시기(will deliver)" 때문이다(예: 고후 1:10, KJV, NKJV 참조).

18) 다음은 고후 3:18의 번역이다. '우리', '저와 같은 형상으로', '주의 영으로'에 대한 번역을 서식별로 가시화하였다. ἡμεῖς δὲ πάντες ἀνακαλυφόμενοι προσώπῳ τῆν δόξαν κυρίου κατοπτριζόμενοι τὴν αὐτὴν εἰκόνα μεταμορφούμεθα ἀπο δόξης εἰς δόξαν, καθάπερ ἀπο κοινου πνοιατικῆς(τοῦ UBS); But we all, with unveiled face, beholding as in a mirror the glory of the Lord, are being transformed into the same image from glory to glory, just as by the Spirit of the Lord(NKJV);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개역성경).

인데 이는 성령론적 특징을 가지는데 성도의 성화가 여기에 포함된다.¹⁹⁾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성도들이 같이 죽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변혁이 일어났다(롬 6:3~9; 엡 2:5~6).²⁰⁾ 이 사실은 그 사건의 당시에는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성도들도 거듭나게 하시어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벧전 1:3)는 말이다.

3) 시공간을 초월한 독특성

도대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1세기 골고다에서 이룩하신 구속사역이 마케도니아의 고린도교회 성도를 '그 가운데 서도록' 하신다는 말인가(고전 15:1)?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묻히시며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사람들에게 보이심으로 팔레스틴에서 멀리 떨어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 곧 그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벧전 1:1)된 자들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는데(벧전 1:8) 그들 각자를 거듭나게 하는 변혁을 일으켰단 말인가?

인류 역사상 이와같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낸 분은 또 다시 있을 수 없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도 예수님처럼 '해석이 없는 4가지 동사'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다. 즉 죽었다가 묻혔다가 나흘만에 다시 살아나 여러 사람들에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인간 나사로와 그가 한 일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무슨 변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지어 반포한

19) 그러나 오늘날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의 강단에서 행해지는 '구원'에 관한 설교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구속(redemption accomplished)에 집중된 느낌이다. 즉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주의 영광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이미 되어 있어 계속 충만해 가야 할 필요성까지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성령론과 구원론의 구원역사적 접목을 이루어 성령론도 역시 오순절에 '이미' 오신 주의 영(Spirit of the Lord)이 '아직' 더 충만해 가야 할 것을 교인들에게 자연스럽게 강조할 수 있겠다.

20) G. R. Beasley - Murray, "Dying and Rising with Christ", In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eds. by G. F. Hawthorne, R. P. Martin, D. G. Reid,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3, pp. 218-222 참조.

것과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발명하여 임진왜란 때 크게 승리한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우리는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다고 우리가 변화받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그 구속사역을 믿을 때만이 이런 변혁을 이루어 낸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한 사역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사역은 시간적으로 그 때 당시에만 한정될 사건이 아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예수님 생애의 4가지 사건으로 구성되는 그의 구속사역은 지역적으로 어느 한 곳에만 묶여질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개인의 생애를 마감한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4) 요약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1)죽으심, 2)물히심, 3)다시 사심, 4)[계바에 계] 보이심, 이 4가지 동사의 나열이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끔찍하지만 놀라운 기독교적 움직임들을 복음이라고 할만큼 믿는 성도들에게 이적적인 변혁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이런 동사로 된 사역의 주체(subject)되신 예수 그리스도의²¹⁾ 인격(Person)은 어떤 분인지 마땅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는 언약의 중보자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근거한 종말론은 언약적임이 분명한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2. 그리스도의 온 교회적인 인격

그렇다면 이 분은 예사로 평범한 분이 아니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표현한 4가지 동사로 나타내는 것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사역(works)에만 치중하고, 복음의 개념 전개에서 그 주체인 '그리스도'(고전 15:3)의 '인격'(Person)에 대하여는 소홀히 한 셈이다.

스도의 인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자²²⁾(참조, 롬 1:3~4).

1) 마태복음 2:15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²³⁾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아버지 요셉의 꿈에 의하여 모친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 가시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저자는 이 사실이 선지자의 예언 성취(fulfillment)를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²⁴⁾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²⁵⁾ 하지 않고;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함이니라'고 하였다.

이것은 호세아 11:1에서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²⁶⁾이라는 내용을 성취시켰다²⁷⁾는 말이다. 즉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것을 말한다. 이것을 인용한 마태복음의 요지는 예수께서 헤롯의 박해를 피해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혼자서 출애굽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하시는 것이나 남자 장정만 60만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박해를

22) 물론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단수로 취급하듯(출 4:22-23 참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다루는 곳이 많다.

23) ἵνα πληρωθῆ(in order that it may be fulfilled ...).

24) R. T. France, *Matthew: Evangelist and Teacher*, Grand Rapids: Academie Book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9, p. 168에서 그는 마태복음의 첫 1~2장이 예수님을 구약의 성취로 계시(A presentation of Jesus as the fulfillment of the Old Testament)함을 주장한다. 또 France는 한국방문 중의 대답에서도 이를 밝히고 있다(『목회와 신학』, 1998(10), pp. 180-187).

25) ומצרים קראתי לבני

26) to summon의 뜻.

27) R. T. France, op cite, p. 185에서 이 성취는 예표론(typology) 입장으로 조심스럽게 보아야 한다고 한다. 즉 예표론의 자기 이해의 방식에 맞추기보다는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언급할 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패턴의 개념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개념으로써 후대의 어떤 사건을 구약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에 비추어 이 '성취'를 이해할 때, 그것이 신학적으로 장차 그 의의가 크게 관련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 출애굽하는 것이 동일시한다는 것이다.²⁸⁾ 이와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이시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셨다는 말이다.²⁹⁾

2) 마태복음 2:16~18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헬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베들레헬과 그 지경의 두 살 아래의 모든 사내아이를 헤롯왕이 죽임으로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통곡하고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 처참한 비극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을 바벨론 포로 시에 라헬,³⁰⁾ 즉 이스라엘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들을 잃은 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31:15)에 비추어 해석하고 있다. 베들레헬에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살해사건을 마치 예수님이 애굽에 쫓겨갔다가(exile) 다시 돌아온 것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벨론에 포로(exile)로 잡혀갔다가 기쁘게 돌아와 회복할 것

France는 또 말하기를(p. 207), 사실상 호세아 11:1은 이스라엘의 과거 출애굽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미래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예표론에 입각하여 볼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에서 출애굽 사건(exodus)은 하나님의 장차 구속 사건의 예표(표상)로 사용되고 있음을 아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한다. 출애굽 사건의 자연스러운 예표적 사용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은 출애굽 사건의 성취로 본다는 것이다. J. B. Jordan은 이것을 출애굽 주제(exodus motif)로 본다(참조 황창기, *op cite*, p. 16).

28) 예수님이 남자 2살 이하의 사내아이가 살해되는 가운데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나, 모세가 애굽에서 남자 사내아이는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가운데 구출 받는 점이 비슷하다고 한다. 참조 R. E. Brown, *The Birth of the Messiahs: A Commentary on the Infancy Narratives in Matthew and Luke*,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77, pp. 214 ff.

29) 물론 이것은 실현된 종말론의 안목에서는 예수님이 종말론적 소망과 유대주의의 메시아 대망을 이루시며,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일반적인 부활로 도입시켰다(inaugurated)고 말할 수 있다.(참조: D. C. Allison, Jr. "Eschatology", In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eds. by J. B. Green, S McKnight, I. H. Marshall,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2, p. 208.)

30) 라헬이 의인화(personify)된 것파 라헬 한 사람을 이스라엘 어머니 전체를 나타내는 용법을 눈여겨 보라.

을 내다보는 전주곡(Prelude)으로 이 구절을 기록한 것이다.³¹⁾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애굽에서 불러 나오듯이 유대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불러나오는 출애굽 주제(exodus motif)³²⁾의 일원으로 이 구절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라마³³⁾에서 슬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유대나라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의 형편이다. 즉 백성의 장정이 잡혀가는 것으로 인하여 그 어머니들이 통곡하는 민족적 서러움으로 표시하고 있다. 예수님 날 때의 살해된 아기들의 어머니들은 곧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의 유대나라 어머니들과 동일시되고 있다. 그 배후에는 아기 예수님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가리키며 이것은 곧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출바벨론과 연관을 짓는 것이 분명하다.

3) 사도행전 9:3~4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 지라 땅에 엎드려 들어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22:7, 26:14)

사울이 '주의 제자'(행 9:1)를 체포하기 위하여 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발급 받아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 나타나신 주님의 말씀 중 일부이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내 제자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시지 않고 '나'를 이라고 하심으로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였다. 마태복음 25:45에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는데도 이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31) R. T. France, *Matthew: Evangelist and Teacher*, p. 208.

32) 황창기, 「예수님, 교회 그리고 나」, p. 16 n.3

33) 예레미야를 포함한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곳(렘 40:1), 벤야민 지역이며, 라헬의 무덤이 있음.

4) 갈라디아서 3:16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ㄱ)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출애굽 당시의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명이나 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전체 숫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도 '하나 (One)라 했다. 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육적인 자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인 줄 알아야 한다(갈 3:7; 26; 29).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들이 한 분 예수님으로 대표된다. O. Cullmann은 이 말씀을 근거로 구약은 여럿이 한 분으로 줄어지고(Many in One), 신약은 한 분이 여럿으로 늘어난다(One in Many)고 말했다.³⁴⁾ ㄷ)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모든 참 백성(여기에는 아직도 나지 아니한 주의 참 백성 포함)을 포함한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invisible Church)를 '한 분 그리스도'라 한 셈이다. 즉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주의 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있다는 말이다.

5) 에베소서 2:15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one new man)' ³⁵⁾을 지었다고 말한다. 단순히 두 계통의 사람들이 하나로 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신약 교회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안에서 새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신약교회를 '한 사람'이라고 함으로 그 단체적 성격 ³⁶⁾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6) 고린도후서 5:14-1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전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어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음이 14절 마지막에 나오고 그 죽음의 목적이 그 다음 15절에 이어진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살게) 하려" ³⁷⁾ 함이니라.

P. E. Hughes³⁸⁾는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사람 대신(*ὁ ὑπὲρ πάντων*)³⁹⁾ 죽으셨다. 그러니까(*ἀρα*) 모든 사람이 죽었다(*ὅτι πάντες ἀπέθανεν*)는 말이다. 그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이다. ..." Athanasius는 "모든 사람의 죽음이 주님의 몸에서 다 완료되었다(*consummated*), 사망과 부패가 그 말씀(The Word=예수님)을 통하여 온전

35) *εν αὐτῷ εἰς ἓνα καινὸν ἄνθρωπον.*

36) H. Wheeler Robinson 등이 말하는 집단적 인격(*corporate personality*)이란 말은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황창기, *op cite*, p. 18 n. 8 참조).

37) *ὡς* + 가정법으로 목적을 나타냄.

38) P. E. Hughe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NIC)*, Grand Rapids: Eerdmans, 1962, p. 194

39) 우리말 번역이 잘 되었다. 이 *ὕπερ*는 *ἀντι*와 함께 "대신함을 나타내는 전치사" (*substitutionary preposition*)이다(몬 13; 딤후전 2:6). P. E. Hughes, *ibid.*, pp. 193-194, n. 24 참조.

34) O. Cullmann, *Christ and Time: The Primitive Christian Conception of Time and History*, rev. edition, Trans from the German by Floyd V. Fils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4, p. 118.

히 파멸에 이르렀다 ...”고 말하였다.⁴⁰⁾ 단순과거 동사를 사용하여⁴¹⁾ “한 사람이 죽었다 ...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 과연 이 구절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대표가 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가장 명료한 표현 중의 하나⁴²⁾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로마서 5:12~21의 내용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⁴³⁾

즉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예수님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롬 5:12)는 말이다. 아담과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의 경우에 한 번의 행위가 우주를 포함하는 만물(παντα)적 결과를 가져와서 모든 사람만 아니라 ‘만물’이 실제로 연루되어 있다는 말이다.⁴⁴⁾ 그래서 Thomas Goodwin은 “하나님 앞에는 아담과 그리스도 두 사람만 있을 뿐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들의 허리에 매달려 있다”(cf. 고전 15:22)고 묘하게 표현하였다.⁴⁵⁾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 교회적 인격을 다시 확인한다.

7) 요약

그리스도의 이러한 인격의 특성 때문에 그가 부활하셨을 때 그 당시 나타나지도 않았던 ‘우리’가 거듭났다(행전 1:3)는 변혁의 축복이 가능하다. 물론 이것은 성령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재창조(παλλιγγενεσια:

40) 재인용, P. E. Hughes, *ibid.*, p. 195.
41) 골 3:3; 롬 6:1~11(롬 5:12~21의 논지를 이어서 보충함).
42) J. D. G. Dunn, "Paul's Understanding", p. 130. 재인용, R. P. Martin, *2 Corinthians*, (WBC), WACO (TX): Word Books, 1986, p. 142.
43) 사실은 우리 주제를 위하여, 즉 처음에 우리가 던진 문제(롬 6:3-8)에 답하기 위하여 6장 바로 앞에 있는 소위 '대표원리' 본문(롬 5:12-21)을 다루는 것이 자연스러운 듯하나 복음의 인격적 특성이 개인 및 우주보다 더 큰 만물(판타)적 재창조를 가리키는 점을 부각시키는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피하였다.
44)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만인 구원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45) 재인용 P. E. Hughes, *op cite*, p. 195.

regeneration)⁴⁶⁾의 문제이다.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종말론적 변혁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대표원리도, 임마누엘 원리도 더 쉽게 이해하게 된다.

3. 그리스도의 판타(παντα: 만유)적⁴⁷⁾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은 우주보다도 더 큰 만유적 인격, 즉 판타(all)의 인격을 가지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에베소서 1:22-23

또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위에서 밑줄 친 부분에서 드러나듯이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이다.⁴⁸⁾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이시며(22절) 동시에 만물 위에 있는(ἵπερ πάντα) 교회의 머리이시다는 말이다(엡 5:23). 즉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 교회 - 만물'의 순서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머리되심(headship)은 같은 것이 아니다.⁴⁹⁾ 머리란 권

46) 우리는 딤후 3:5에 나오는 중생을 우리들의 회개의 결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재창조의 사역이 먼저 그 기초가 됨을 알아야 한다. W. H. Gispen et al eds. *The Eerdmans Bible Dictionary*, trans. from Dutch to English, Grand Rapids: Eerdmans, 1987, p. 878; 황창기, 「예수님, 교회 그리고 나」, p. 285; 그리고 황창기 "포도원 비유의 해석과 설교", 「허순길 박사 은퇴기념 논문집: 개혁교회의 경로」, 천안: 고려신학 대학원 출판부, 1999, p. 148.
47) 이 말은 '만물'(예, 골 1:15~20) 또는 '만유'(고전 15:28 절)로 번역되나, 그 말이 의미하는 뜻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냄.
48) 1:22-23 και αυτον εδωκεν κεφαλην ἵπερ πάντα τη εκκλησια, ἣτις εστιν το σωμα αυτου (and He gave Him as head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 which is the body ...[NASB].)
49) P. J. Leithart, *op cite*, p. 62 참조.

위와 통치를 의미한다. 또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데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충만이다.⁵⁰⁾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포함하신다.

2) 골로새서 1:17~18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 1:18절에서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⁵¹⁾라는 표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몸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임을 말한다. 여기서 교회는(그리스도의) 몸에 해당되는데 이 몸은 16절과 17절에 있는 만물을 포함한다.⁵²⁾ 만물의 정의는 16절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만물이(만유가)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라고 표현한 것이 곧 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포함된다. 만물 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⁵³⁾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거룩한 세계’ (holy world)로 온 우주보다 더 큰 차원을 지닌다.

50) 여기에 대하여는 R. Yates, “a Reexamination of Eph 1:23,” ExpT 83(1971-1972) 146-151; 그리고 John Stott 와 A. T. Lincoln의 에베소 주석을 참조하라.

51) ἡ κεφαλή του σώματος της εκκλησίας, 여기서 둘께 속격은 동격을 나타내는 속격(epexegetical genitive 또는 genitive of apposition)으로 ‘교회의 몸’이 아니고, 한글 개역에서처럼 ‘몸인 교회’라는 표현은 적절한 것임(Zerwick, *Biblical Greek*, p. 17 등).

52) 골 1:16의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 (ὅτι ἐν αὐτῷ ἐκτίθη τα πάντα …)” 와 1:17의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τα πάντα ἐν αὐτῷ συνεστήκειν = in Him all things consist [NKJV])”에서도 이 의미가 뚜렷함.

53) A. T. Robertson,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vol. IV, *The Epistles of Paul*,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31 rep, no date, pp. 478-480.

3) 요약

복음은 단순히 개인 구원의 기쁜 소식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피)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이다.⁵⁴⁾ 이것은 이 세상에 이미 오는 세상이 침투한 것으로 종말론적(eschatological)이요, 결정적(definitive)이란 말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아담, 형상의 건설자(architect)이시다. 그 나라의 새로운 세계의 개설은 일종의 구출작전이 아니라, 우주적 건축 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어떤 학자는 말하나⁵⁵⁾ 사실 이것은 우주보다 큰 판타(παντα:만유)의 건축계획이다.

역시 예수님의 인격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온 교회적 인격(whole church Person)이시요, 온 우주를 초월하시는 판타(만물 = 만유적) 인격(panta Person)이시란 말이다.

III. 종말론적 화목의 변혁

종래의 종말론은 주로 ‘시간’ 중심으로 ‘마지막에 관한 것’들(τα εσχάτα)을 논의하여 왔기에, ‘변혁(화)’에는 별로 관심도 보이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체계화된 정리도 보편화되지 아니한 듯 하다. 사실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간을 초월하는 복음 - 우주보다 큰 만유적인 인격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사신 그의 사역 - 을 시간에 묶어서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복음이 ‘시간’에 속박되고 역사에 종속되어 있다. 이 사실이 성경적이 아님을 지적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54) P. J. Leithart, *op cite*, p. 169.

55) William J. Dumbrell, *The End of the Beginning: Revelation 21-22 and the Old Testament*, Hombush West, Australia: Lancer 1985, p. 194. 재인용 P. J. Leithart, *op cite*, p. 170.

이제,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역 -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나시어 죽으심과 부활하심 - 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은 물론 만유(물)(판타)에게 종말론적으로 이미(already) 화복⁵⁶⁾의 변혁이 일어났으나(but), 그 최종적 완성은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not yet) 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성도(개인 및 전체)의 종말론적 변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어 오로 그와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는 믿는 성도 각자는 오순절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 곧 주의 영(the Spirit of the Lord)에 의하여(고후 3:17~18) 중대한 영적 변혁을 입었다(롬 6:1~11).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근거로 한 종말론은 성령론적 종말론을 다른 각도로 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⁵⁷⁾ 모두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이미 믿는 자들에게 원칙적으로 이뤄진 종말론적 변혁인데,⁵⁸⁾ 이는 옛 사람이 멸망받아 지나가고 새 사람이 회복되는 변혁이다. 이 변혁은 세례와 성찬으로 믿는 성도에게 구현된다.⁵⁹⁾

1) 하늘에 앉힌 자

성도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시어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었다(엡 2:5, 6) 그리고 여기 '함께 살리셨다'(συνεζωοποίησεν; 5절)는 말은 이 변혁이 성령의 사역인데, 이것을 고린도후서 3:6 끝에서도 '영은 살리

56) 화복(καταλλαγή : reconciliation).

57) 종말론을 성령론적으로 다루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앞의 II장의 7)요약 참조.

58) 여기서 이 변혁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 근본을 제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만은 부인할 수 없다.

59) G. R. Beasley-Murray, "Dying and Rising with Christ", In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eds. by G. F. Hawthorne, R. P. Martin, D. G. Reid,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3, pp. 218-222, 참조.

는 것임이니라'(το δε πνευμα ζωοποιει)고 함으로 성령, 곧 주의 영이 주체(subject)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영을 고린도전서 15:45에서는 살려 주는 영(life giving Spirit)이라고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로 살려 주는 영으로 되어진 것은 곧 구속사적 변혁(redemptive-historical transformation)⁶⁰⁾이며 이 변혁으로 성도들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에베소서 1:20 에도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라고 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하늘의 보좌를 가리킨다. 따라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좌에 앉히었다는 말이다.⁶¹⁾

2) 영생을 가진 자

성도는 동물들이 가진 목숨⁶²⁾ 외에 예수님 안의 생명⁶³⁾을 더 가지고 있어서(요일 5:11~12) 생명을 둘⁶⁴⁾ 가지고 있다. 골로새서 3:3에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고 한다. 이 생명은 영적이요 하늘의 것으로서 복음을 듣고 거듭남으로 주어진다.

60) 고전 15: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다. 나; ... 'ο εσχάτος Ἀδάμ εἰς πνεῦμα ζωοποιου ... 을 NASB가 The la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로 번역한 것에서 보여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살려 주는 영으로 변하였으니 이는 구속사적(redemptive-historical) 사역이다.(참조 고후 3:17; R. R. Gaffin, Jr., *The Centrality of Resurrection 'Resurrection and Redemp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8, pp. 78-97, 특히 89면 재판되었을 때는 책이름이 바뀌었음).

61) P. J. Leithart, *op cite*, p. 68.

62) 목숨(ψυχή)의 활력 정도(vitality)를 나타내는 몸의 혈압, 체온, 맥박(vital signs) 등으로 나타내는데 이는 짐승들에게도 있다.

63) ζῶν αἰώνιον(영생) ... ζῶν ἐν τῷ υἱῷ αὐτοῦ(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은 목숨(ψυχή)과 다름.

64) Belgic Confession, article 35: "... Now those who are born again have two lives in them. The one is physical and temporal - they have it from the moment of their first birth, and it is common to all. The other is spiritual and heavenly, and is given them in their second birth; it comes through the Word of the gospel in the communion of the body of Christ; and this life is common to God's elect only ..."

3) 세상을 이긴 자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자⁶⁵⁾임을 요한일서 5:4~10에서 밝히고 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어둠, 죄, 사탄의 권세, 사망을 이긴다는 말이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25~26에서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 라고 선언하시었다. 그런데 이것을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⁶⁶⁾라고 하며 이 셋의 증거는 한결같이 다 같다⁶⁷⁾고 요한은 주장한다.

4) 부활의 능력 소유자

성도는 부활의 능력을 이미 여기서 지니고 있다. 에베소서 1:15 이하에 바울의 기도, 그 네 번째 간구에서(19절 이하)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언급하면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⁶⁸⁾ 것인지를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소원하고 있다. 에베소서 1:19의 저자는 그 능력을 20절에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천명한다. 즉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존재함을 피력하였다. 특히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은 성도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65) ὁ ἰκῶν τοῦ κόσμου (1 John 5:5).

66) 요일 5:8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여기서 το πνεῦμα (성령), το ὕδωρ(물), τὸ αἷμα (피)는 성도 속에 거하는(오순절) 성령으로 적용할 수 있고, 또 세례식, 성찬식을 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67) 요일 5:8 "...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 καὶ οὗ τρεῖς τὸ ἐν εἰσὶν")를 and these three agree as one [NKJV]; and the three are in agreement[NASB, NIV]로 번역하고 있다.

68) '어떠한' (τῶ)것으로 표현하는 자체가 성도 안에 부활 능력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5) 세례요한보다 큰 자

성도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로서 천국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다. 즉 마태복음 11:11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물론 여기서 '크다'는 개념은 모든 대중들의 평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잣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6) 율법을 이룬 자

성도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낸 자가 되었다(롬 10:4; 8: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롬 10:4). 여기서 율법의 마침(τελος νομου)은 율법의 '마지막(end)'이라기보다도 '목적(goal), 목표(aim)'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마지막'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는 목적(εἰς)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만 충족시킬 수가 있다. "...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3~4). 이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다(마 5:17).

7) 요약

그 외에도 의인, 성도(고전 1:2), 성전(고전 6:19), 참 예배자(요 4:23), 완전한 자(골 1:28), 아들(엡 1:5)과 같은 명칭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이는 종말론적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맛보고(히 6:4~6), 어린양의 혼인잔치를 맛보고(고전 10:16; 계 19:6), 우리는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

에 올라와 있다(히 12:18~24).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구속 사역으로 크리스찬은 이 모든 하나님에게 화목된 특권(엡 2:16)을 이미 여기서 지금(already - here - now) 누리기 시작하였으나 그 완성은 그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 이미 이룩된 것들이다. 우리는 임마누엘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 을 이해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신 '낮아지신 그리스도' (humiliated Christ)만을 생각함으로써, 실제로는 우리가 하늘에까지 '높아진 성도' 임을 잊을 때가 많음을 기억해야 한다.⁶⁹⁾

2. 만유의 종말론적 변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구속 사역은 온 교회 차원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온 우주보다 큰 만유적 변혁을 일으켰다.

1) 그리스도 안의 새 창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 (고후 5:17~18)

고린도후서 5:15에서 신자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εαυτοτοις)⁷⁰⁾ 살지

69) 1995년 말 필자가 미국 LA에서 특강 중 이근삼 박사님과 새벽기도 후에 공원을 산책하면서 대화하는 중에 이 점을 확인한 적이 있다. 즉 '임마누엘'이라고 하면(마 1:21) 성도가 높아진 점을 조직신학(교회학) 쪽에서 아직 도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점이다.

70) 여기 쓰인 3격(εαυτοις, τω ...)을 '위하여'로 번역하였으나, 다른 곳에서는 "...에게"(눅 20:38), "...대

않고 그들을 위하여(ὕπερ αὐτων)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τω) 곧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ἵνα... ζῶσιν)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⁷¹⁾ 그 결과 신자는 16절에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고 한다고 한다. 신자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교회; 참조 엡 2:15) 여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⁷²⁾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판타)의 변혁을 17 절에서 선언한다.⁷³⁾ 그 결과는 이제 육체대로 사람을 알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의 사람(man-in-Christ)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또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종말론적 대우주(eschatological macrocosm)에 속한 거듭난 소우주(a reborn microcosm)에⁷⁴⁾ 속한다. 이 구절은 얼른 보면 주관적인 체험을 다루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종말론적 새로움을 다룬다.⁷⁵⁾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εν Χριστω)⁷⁶⁾란 문구는 종말론적 용어이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들(판타)⁷⁷⁾이 처한 구원사적 표현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εν Χριστω καινη κτίσις)⁷⁸⁾이면 옛 것은 지나갔다(τα αρχαία παρελθεν). 보라! 새것(καινα)이 왔다는 말은 역시 종말론적이다. 이

하여"(롬 6:2, 11), "... 향하여"(갈 2:19)로 번역하여 우리말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ὑπερ'속격 또는 'ἵνα + 가정법이 목적을 나타내는 것(in order to do)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즉 후자는 "...을 위하여 산다'고 할 때, 그 방법에 대한 어떤 대안(alternative)이 있을 수 있으나, 전자는(3격의 경우) 대안이 전혀 없어 보인다.

71)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ὑπερ παντων) 죽으심은(ἀπεθανεν)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εαυτοις)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ὑπερ αὐτων) 죽었다가(τω... ἀπεθανοτι) 다시 자신 자신을 위하여(τω... ἐγερευεντι) 살게 하려 함이니라(ἵνα... ζῶσιν).

72) P. E. Hughes, op cite., p. 197.

73) 마찬가지로 헬라이 동사가 이 사실을 보여 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παρελθεν)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γενιουεν = 완료형).

74) op cite., p. 201.

75) G. E. Ladd,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rev. ed., Grand Rapids: Eerdmans, 1993, p. 521; R. P. Martin, op cite., p. 152.

76) G. E. Ladd, ibid, pp. 523-552.

77) 골 1:16-17 내용임.

78) R. P. Martin, op cite., p. 152.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개인의 거듭남과 같은 차원보다 더 깊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καινη κτισις*)은 곧 '새 창조' (new creation)이다(참조, 고전 15:50~57).⁷⁹⁾

바울은 창조의 새로운 행위를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존재론적 차원이 있어서 옛 창조에 시작된 아담의 범죄로 인한 온 만유적 파국을 뒤집어 엎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만유적 관계에서 새로운 단원을 열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주님의 오심으로 새로운 종말론적 국면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만물에 전개됨을 이 표현이 보여 준다.⁸⁰⁾

2) 하나님과 만유의 화목

a. 세상과의 화목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 5:19)

고린도후서 5:18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⁸¹⁾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참조, 골 1:22)⁸²⁾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79) *ibid.*

80) *ibid.*

81) *τα δε παντα εκ του θεου του καταλλαξαντος ημας εαυτω δια Χριστου* ...에서 화목사역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나타내나, 속격 독립구문(*του καταλλαξαντος*)으로 화목사역의 주어는 하나님임을 나타낸다.

82) 골 1:22에서(“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는(*νυν*) 신약시대를 가리키며 구약에 대한 말이며, ‘너희를 ... 세우고자’는 *παρυστησαι*(*ημας*)는 단순과거 부정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1세기에 십자가에 죽으심(*αυτου δια του θανατου*)으로 팔로세 교인들을 이미(already) a) 거룩하고, b) 흠없고, c) 책망할 것이 없도록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셨으며(아직 기록하지 못하나 = not yet be holy...) 재림 때에는 이 성화가 완전히 해결될 것임.

의 화목 대상은 ‘우리’(*ημας*)이다. 그러나 18절 내용을 다시 19절에 반복하면서⁸³⁾ 하나님의 화목 대상이 ‘우리’에서 ‘세상’⁸⁴⁾으로 확대되었다. 19절의 ‘그리스도 안에’(*εν Χριστω*)는 ‘화목하게 하시는’ 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지는 오래 전부터 논란을 벌여오고 있어 쉽게 확정지을 수 없다.⁸⁵⁾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자는 하나님의 일이 곧 그리스도의 일과 동일시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구절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화목이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온 세상적(cosmic)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우주적인가? 즉 그것은 먼저 인류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인간이 피조물의 면류관으로서 그의 범죄로 저주가 온 영역에 퍼진 것과 같이, 사람의 회복으로 온 세상(*κοσμος*)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이다.⁸⁶⁾

b. 만물과의 화목

아버지께서는 모든 총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

83) *ως οτι θεος ην εν Χριστω* ... (namely that God was ... [NASB]),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 뜻이 드러나지 않는다.

84) C. K. Barrett(*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3, p. 177)는 본 절을 주석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화목의 대상인 ‘세상’(*κοσμον καταλλασσων*)은 관사를 가지지 아니하여 온 세상을 뜻한다고 본다.

85) P. E. Hughes, *Commentary on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NIC), pp. 207f.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다음 2가지로 양분된 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즉 a) God was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Origen, Ambrose, Ambrosiaster, Herveius, Erasmus, Luther, Calvin, Beza, Bengel, Bachmann, Allo, etc.) b) God was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in Christ, (Chrysostom, Theodoret, Theophylact, Estius, Meyer, Alford, Olshausen, Hodge, Denny, Plummer, Strachan, Filson, R. S. V. mg, etc.).

전자의 해석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시키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그 앞 절) [18절]에서와 같이 도구로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서, 그 존재와 행위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본다. 반면에 후자의 해석에서는 동사의 시제를 강조하여 우리의 화목이 좌우되는 완료된 역사적 사건을 가리킨다고 본다. 이 견해에서는 동사(*ην* was)가 홀로 쓰이기보다는 분사(*καταλλασσων*: reconciling)와 더불어 일종의 완곡법을 이루어서(periphrastic construction), 십자가의 역사적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거기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신에게 화목하게 하시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86) P. E. Hughes, *ibid.*, p. 209.

와 화목케 되기를⁸⁷⁾ 기뻐하심이라(골 1:19~20)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⁸⁸⁾라는 표현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역의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보다 더 큰 만물(τα παντα)을 자기와 화목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 만물은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규정하고 있다.⁸⁹⁾ 복음의 4가지 동사로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그 화목의 영역 면에서 개인의 영혼 구원 차원에서 온 세상으로 확대되고, 나아가서 만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 옛 것의 지나감

고린도 후서 5:17 이하에서는 이전(옛) 것과 새 것이 대조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1) 그리스도안의 새생활에서) 옛 것과 새 것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도 있지만 연속성도 있다. 즉 옛 것이 변화하여 새 것으로 되었다는 말도 된다. 예수님이 변화 산상에서 변하듯이 변하는 것(transfiguration)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따른 변혁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어떤 위대한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분을 1세기에 묶어두고, 팔레스틴에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 교회적 인격이요, 판타(만유)적 인격을 쉽게 망각한다.

'옛 것이 지나갔다'라는 말은 죄(요일 3:5), 마귀(요일 3:8), 사망이 지

87) αποκαταλλαξαι에서 καταλλαξω에 접두어 απο가 붙어 있음.

88) ειρηνοποιησας δια του αιματος του σταυρου(having made peace through the blood of His cross). 여기서 과거분사를 서술적 용법을 사용하여, 20절의 첫 부분인 δι αυτου αποκαταλλαξαι τα παντα εις αυτον을 설명한다.

89) ...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 기뻐하심이라(... τα παντα εις αυτον ... δι αυτου ειπε τα επι της γης ειπε τα εν τοις ουρανοις.).

나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은 어두움의 종말, 죄의 종말, 마귀의 종말, 사망의 종말이다. 이는 유대주의의 마지막이요, 이 세상(this Age)의 종말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히 9:26)에 나타나셨기 때문이다.⁹⁰⁾ 그래서 성도들은 '말세를 만난 사람'(고전 10:11)이기도 하다.⁹¹⁾

4) 요약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새로 이해하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단순히 한 인간의 죽음, 인생 마감, 세상 이별(별세), 세상을 떠나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분의 부활은 일반적 부활을 나타내며 새 세상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는 참 성전(요 2:21)으로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돌로 지은(헤롯) 성전 즉 그림자 성전의 파괴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는 나아가서 온 세상, 즉 만물(만유)의 옛 것의 파괴를 나타내는 면도 있다. 따라서 A. D. 70년의 예루살렘 성전과 파괴는 옛 유대주의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것이 온 우주적 격변과 파멸⁹²⁾로 표현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90) (히 9:26) "그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νυν δε απαξ επι συντελεα των αιωνων ... πεφανερωται).

91) 고전 10:11 "지혜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εις ους τα τελη των αιωνων καταπηρηκεν : upon whom the ends of ages have come... [NASB, NKJV])."는 표현 중에서 '말세를 만난 우리'란 말은 '그들 위에 세상의 끝들이 도래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대주의 세상의 끝' (the end of the Jewish age), 즉 '옛 세상'의 끝에 살면서 또 동시에 '오는 세상'의 시작에 살고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두 끝이 중첩된(overlapped)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이다. 이점은 모든 성도에게도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으로 인한 의(righteousness)로 의인이 되었지만,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곤고한 사람'으로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롬 7:24; 8:23)(참조, John Marsh, "Time", In A. Richardson, eds. A Theological Word Book of the Bibl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50, p. 265; 그리고 R. C. Sproul, op cite, p. 89).

92) 마 24:29에서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라고 말함으로 구약의 애굽 바벨론, 사마리아, 에돔의 멸망과 그 신학적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의 심판'(요 12:31)이요, '사탄의 쫓겨남'(요 16:11)이요, '멸망의 자식의 파멸'(요 17:12; 살후 2:3)이다. 예수님 자신이 곧 끝(eschaton)이요 그 실제적 내용이다.

3. 새 세상(천국)으로의 변혁⁹³⁾

지금까지 우리는 '종말론적 화목의 변혁'을 논의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이미 도래하였으나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⁹⁴⁾ 즉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지닌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인한 이미 새로 변혁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야 완전히 나타나 세워질 '만물의 새 세상 질서'로 정의⁹⁵⁾

이해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즉 옛 세상의 파멸과 오는 세상의 도래를 동시에 나타내는 점을 사도행전 2:17-20에서 베드로의 구약 요엘서의 인용으로 시작한 설교에서 드러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오는 세상의 도래)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짐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옛 세상의 파멸)

93) 이 부분은 P. J. Leithart, *The Kingdom and the Power*, pp. 18-21에 많이 의존하였다. 여기서 Leithart는 교회 중심의 천국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94) Leithart 22 참조.

95) P. J. Leithart는 그의 Unpublished paper "What is the Kingdom?"에서 자기의 천국 정의에 대하여 약점과 강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대개 다음과 같다.

이 정의는 그 나라를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에 맞춘 성경의 초점을 흐리게 한 약점이 있는 반면에, 매우 포괄적 정의라는 것이 강점이다. 이 "새 세계-질서"의 특성들에 대하여는 좀더 자세히 설명하여야 하겠지만, 이 정의는 절대적으로 그 나라의 우주적인 면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

현대 학자들은 헬라어 바실레이아(basileia)가 "다스림"(rule)을 의미하지, "영역"(realm)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실레이아를 "나라"라고 번역하기보다 "다스림"(rule) 또는 "지배"(dominion) 혹은 "통치"(reign)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다스림"(rule)보다는 "영역"(realm)을 강조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 안에 오심을 의미한다는 말이다. 만물의 원래 질서를 회복하고 완결함으로써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오시어 그의 통치를 확실히 보여 주는 것을 의미한

할 수 있겠다. 이제 이 변화된 내용들을 살펴보자.⁹⁶⁾

1) 하늘에서의 변혁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급격한 변혁(a radical transformation in the heavens)⁹⁷⁾을 이룩하셨다. 옛 언약에서는 사탄이 사람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진 입장에 있었다. 그는 하늘에 있었다(욥 1~2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후에는 사탄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보좌의 오른 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 편에 오르시어 지금도 통치하시며(엡 1:19~23), "모든 원수들 그 발 아래 들 때까지 불가불 왕 노릇하심을 말한다(고전 15:25). 그는 열방을 그의 유업으로 받아(시 2),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순종하도록 통치하시고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하늘의 보좌에까지 높아졌다(엡 2:6).

2) 성소에서의 변혁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참된 성소(true, heavenly sanctuary)를 여시어 성소에서의 급격한 변혁(a radical transformation at the sanctuary)을

다. 그의 나라를 "구원 통치"(saving rule)로 정의하기보다도 구체적으로 천국 개념은 그 나라에 "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환경(정황)"(environment)으로 불릴 수 있는 것(마 5:20; 7:21; 18:3; 요 3:5 등)과,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place; 마 8:11)을 포함하는 점에서 발견되어진다.

끝으로 이 정의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하여 전파하셨다는 사실을 함당하게 만든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자유주의자들은 복음서가 예수께서 세상이 거의 마감되어 간다고 전파하였다고 말했다. 확실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잘못하였다는 것이다(A Schweitzer). 이 도전에 직면한 자유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가지고 오신 구조적 변화를 강조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것이 "세상의 종말"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그 때 그들은 예수님이 종말이 임박하였음을 강조하신 점을 설명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

96) P. J. Leithart *op cit*, pp. 14-22.

97) P. J. Leithart, *ibid*, p. 18.

이루셨다. 아담과 하와 이래 옛 언약시대에는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 제외되었다(레 16:1~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것은 지상 성전이 더 이상 기록하지 않다는 표적(sign)이요 또 하늘의 장막이 열리는 지상의 상징이었다(마 27:51). 우리는 믿음으로써 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히 9~10).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인도되는 길을 여시어,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모든 축복을 즐길 수 있도록 하시었다. 우리는 거룩한 곳에서 배풀어지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하늘의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힘을 얻으며 세상을 하늘의 형상으로 변혁시키고 있다.

3) 땅에서의 변혁

그리스도께서는 땅 위에서의 급격한 변혁(a radical transformation on earth)을 이룩하셨다. 구약에서는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 사역은 이스라엘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에서 성취되었다.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벽이 허물어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새 사람'으로 연합되었다(엡 2:14~15). 새 이스라엘은 다스리는 자들의 족속으로, 아담에게 부여된 본래의 사명을 성취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만물의 유업이요 소유자이다(엡 2:6, 고전 3:21~23).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되어서 무장됨으로써 여러 족속을 제사 삼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간다(마 6:10; 28:18~20).

4) 교회의 종말론적 변혁 사명

위에 열거한 세 가지 변혁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시어, 그의 백성에게 은사를 주신다(엡 4:7 이하). 그 은사 중의 하나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리를 함께 행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은사 중의 또 다른 은사는 그의 식탁에 함께 앉아 하늘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권리이다. 같은 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 나라를 형성한다. 이러한 하늘의 영적 축복으로 새롭게 된 후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세상으로 나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 즉 교회(성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이루어 갈 사명이 있다는 말이다.

이와같이 천국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이 말은 그의 인격 중심의 천국 이해가 사역 중심의 천국보다 앞선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필자가 평소에 다음과 같이 주장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⁹⁸⁾

지금까지 신학계에서 논하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심이었다. 그러면 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세례요한의 예언이(마 3:10~12) 주님의 지상사역(마 4:23~9:35)으로 성취되어지고 있음⁹⁹⁾을 학자들이 보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사역 중심 천국 논의에다 그리스도의 인격 중심의 천국논의가 같이 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인격을 제외한 천국 논의는 그 출발부터 바람직하지 못하였다. 그 천국은 1세기에 한정되어 있었고, ... 그 천국은 존재(being)를 짓혀두고 사역(doings) 위주의 천국 격이 되었다. 그 사역에 관한 논의도 천국의 정체성(identity)을 바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만 셈이다.¹⁰⁰⁾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 이해가 결여된 천국의 사역은 하나의 도덕에 불과한 것이다.

말하자면,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중심으로 이해하면, 천국의 백

98) 황창기, 「예수님, 교회 그리고 나」, 서울: 성광문화사, 1998, pp. 240~241

99) 황창기, 「예수님, 교회 그리고 나」, p. 229 참조.

100) P. P. J. Beyerhaus, *God's Kingdom and the Utopian Error*, Wheaton (IL): Crossway Books, 1992, p. ix

성이 된 우리 성도의 종말론적 사명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도 쉽다고 하겠다.

5) 요약

그 나라는 하늘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성소인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축제로 즐기는 것을 성소 안에서 행하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교회인데¹⁰¹⁾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Body)이요 신부이며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 뿐만 아니라, 인격으로 이미 임한 면이 있다. 천국은 예수님의 온 교회적 인격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역사상 1세기에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었던 하나의 추상적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IV. 결론

1.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지요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분은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었다. 그분의 인격은 온 교회적 인격이시다. 그리스도 안에는 아담부터 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부터 신약의 모든 성도들 다 포함한다. 이 말에는 그리스도 안에 오늘 현대 교회의 모든 참 신자와 아직도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들 중에도 포함되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났다.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101) 교회는 천국에 포함되면서 서로 다른 점도 있으나, 교회가 본질상 천국과 핵심적으로 동일한 점이 많음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래드(G. E. Ladd)의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Theology*, pp. 105-119을 참조하라. 그리고 마셜(I. H. Marshall, op cite, p. 12)은 과거 중세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 문제를 잘못 적용한 점을 시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통치의 대상이며, 따라서 불완전하고 죄가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동의한다.

모세, 다윗,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위시하여 신약의 모든 성도(1세기, 5세기 ... 20세기 성도는 물론이고,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 중에도 포함되는 사람들이 있음)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일어나 하늘에 앉혔다는 말이다. 주님의 이 기독교적 운동(Christological movement)¹⁰²⁾은 시간을 초월하였다는 말이다. 따라서 시간 중심의 종말론보다도 인격 중심의 종말론이 성경적 종말론이다.¹⁰³⁾

2. 온 교회적 인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판타(만<유>물적) 인격도 가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참 성전(요 2:21)으로서 구약의 성막 - 솔로몬 성전 - 제2성전 - 헤롯성전으로 이어지는 구원 역사적 진전을 고려하면서 이해하여야 한다. 구약의 성막과 함께 성전은 온 우주보다 더 큰 만물에 거하시는 무소부재(無所不在)의 주님이 거주하시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집과 같다(사 104:2-32; 암 9:6; 잠 8:22-31; 사 40: 22; 렘 23:24).¹⁰⁴⁾ 예수 그리스도는 판타(παντα, 만유)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 포함하신다. 지상의 모든 것과 하늘의 모든 천사들, 보이

102) J. B. Green, "Death of Jesus", In op. cite, p. 162.

103)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신학적 의의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대교 회에 나오는 모장로 님과 대화하는 중에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았다. 예수님의 육체를 크게 상상하여 그려 보라. 즉 그분의 머리는 아담 당시라고 생각하고, 목 부분은 아브라함 때에, 가슴 부분은 다윗을 위시한 왕조 시대에 맞추는 식으로 나아가서 ... 허리는 예수님 시대에 맞추고, 다리는 신약 이후 교회시대에, 무릎은 오늘 우리를, 그리고 발목 이후는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성도들을 나타내는 커다란 그림을 상상해 보라.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라. 이 분과 함께 온 교회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하늘에 올랐다고 이해하려 해 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 교회적 인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일어난 기독교적 생애 즉 죽음, 묻히심, 다시 사심, 승천하심에 따른 시간을 초월하는 복음을 찬송가 465장 1절에서 노래하고 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시라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러한 찬송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를 포함 4대가 한꺼번에 부름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였음을 외치고 있는 셈이다.

104) V. Poythress, *The Shadow of Christ in the Law of Moses*, Brentwood: Wolgemuth & Hyatt, Publishers, Inc., 1991, p. 31.

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과거 지나간 것과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 그리고 장차 나타날 것을 모두 다 포함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유 중에 피조물로서 제외되는 것은 천상 천하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는 것은 만유(판타)가 함께 파멸되고, 만유(판타)가 함께 회복되는 것이다. 온 우주의 멸망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이미 이루어졌으나 그 완전한 것은,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은 몰라도 반드시 다시 오시고야 말, 예수님의 재림 때 모두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옛 세상(이 세상)이 지나고 새 세상(오는 세상)이 전개되는 것이다(inaugurated).¹⁰⁵⁾

3. 그리스도의 인격 중심의 종말론은 재림과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일부 과거주의' (partial preterism)에 해당한다.¹⁰⁶⁾ 따라서 이것은 재림을 포함한 모든 종말의 사건을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에서 모두 이루어졌다고 믿는 '완전 과거주의' (full preterism)¹⁰⁷⁾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완전 과거주의'는 일반적으로 '과거주의' (preterism)로 알려졌으며,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모든 죽은 자의 육체적인 부활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부정하고 믿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부 과거주의' 자'들은 a)유대인 시대(Jewish age)의 마지막(A. D. 70)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παρουσία)¹⁰⁸⁾와 유대인들에 대한 언약의 심판과 b)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재림을 뚜렷이 구분한

105)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신학적 의의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대학 교회에 나오는 모 장로님과 대화하는 중에 다음과 같이 모색한 내용 중 일부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넘어서 온 우주보다 더 큰 만물을 품으신 예수님 -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 의 죽으심과 부활은 온 우주 만물의 멸망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로 결부시켜 이해해 보라"

106) 참조: R. C. Sproul, *The Last Days According to Jesus*, 1988, pp. 153-170; Partial preterism은 moderate preterism, exegetical preterism, orthodox preterism 등 여러 가지로 부러지고 있으며,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점들도 있다. Kenneth. L. Gentry Jr., Gary DeMar, David Chilton, James B. Jordan, Peter Leihart, R. C. Sproul 등이 이 입장을 지지한다.

107) R. C. Sproul, *ibid* 참조: 이 입장을 consistent preterism, radical preterism, theological preterism, hyper-preterism이라고도 하며, J. Stuart Russell, Marx R. King 등이 이 입장을 지지한다.

다. 따라서 '일부 과거주의자' 들은 A.D. 70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주의 날' (a day of the Lord)¹⁰⁹⁾로서 성전과 예루살렘 위에 언약의 진노를 쏟아 부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유대인을 심판하심으로 유대주의 시대를 마감한 것으로 본다.¹¹⁰⁾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인격 중심의 종말론은 곧 언약적 종말론이란 말이다. 그와 반면에 다음 몇 가지는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도 믿는다: 죽은 자의 부활, 산 자의 휴거(the rapture of the living, 언약의 최후 심판, 대 변혁¹¹¹⁾)은 아직도 주님의 재림 시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 중심의 종말론은 결국 언약적 종말론이요 성령론적 종말론이며, 구속역사적 종말론이다.

4. 성경적 종말론은 '때와 시간' 중심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중심의 승리의 종말론이다. 따라서 시류에 따라 유행하는 '문화종말론'

108) D. B. Knox, "Five comings of Jesus, Matthew 24 and 25", *Reformed Theological Review* 34, 1975, 44-54.

"Coming" is used of Jesus in five ways. (1) He has come from the Father. (2) He will come on the clouds. This will be within the life-time of his hearers. It was fulfilled when he sat down at God's right hand. (3) It is used of judgement. A day of the Son of Man describes God's judgement on human institutions of which A.D. 70 was the most conspicuous example. (4) "Coming" is used of Jesus' coming through the Spirit (John 14:3,18). It is the sign of the Son of Man in heaven. It is accompanied by the preaching of the gospel through which Jesus' messengers gather his elect from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The fifth is the parousia at the end of the world. This coming with his angels for judgement (Matthew 16:27; 25:31, 32; 2Thess. 1:7,8) is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coming on the clouds to receive the kingdom (Daniel 7:13,14). It is the coming predicted of the Ancient of Days in Daniel 7:22 and of the Lord in Deut 33:2(LXX).

이 외에도 최근의 Kinman은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눅 19:28-44)을 그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παρουσία*로 보았다. 그는 예수님의 *ἐπαφουσία*에 대하여 예루살렘이 정당한 절대를 하지 않고 그를 거역하였기에 A.D. 70년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고 한다.

B. Kinman, "Parousia, Jesus' A- Triumphant" Entry, and The Fate of Jerusalem (Luke 19:28-44)",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8(2), 1999, p. 280. 특히 각주 5번 참조.

109)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말일(the last days)의 마지막(end)을 표시한다(marks). 이것을 말하는 다른 방법은 그리스도의 날(the Day of Christ)이란 현 세대의 끝(the present Age, 즉 마 13:39-40, 49)이요 '오는 세상' (the Age to come)의 시작이다.

110) R. C. Sproul, *ibid*, p. 170.

111) R. C. Sproul (*ibid*, p. 170.)은 역사적 종말을 포함시켰으나, '새 하늘과 새 땅'은 우주적 파멸로 역사를 마감하고 오기보다도, 현 세상의 대 변혁(The Great Transformation)으로 전개된다고 본다. 즉 새 하늘과 새 땅도 '이미'와 '아직...아니'라는 구조로 이해한다(참조: 펠후 3장).

은 물론, 새 밀레니엄과 같은 시대를 맞이하며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지나치게 위기의식을 가지는 것도 잘못되었다. 또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로마서 12:1의 날마다 드리는 '영적 예배', 즉 합당한 섬김(reasonable service)을 등한히 하는 종말론은 경계하여야 한다. 특히 그리스도 α (알파)를 주장하여, 그리스도께 어떤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우리는 맡겨진 임무를 신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써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한다.

편집비평에 대한 반성

A Reflection on Redaction Criticism

임영효 교수

Prof. Dr. Young Hyo Im

- I. 서론
- II. 편집비평의 역사적 뿌리
- III. 편집비평의 기원과 정의
- IV. 편집비평에 대한 분석
- V. 편집비평에 대한 평가
- VI. 편집비평에 대한 복음주의적 사용
 1. 역사성의 변질
 2. 성경본문의 조화를 부인함
 3. 상이점을 설명하는 수단으로서의 풍유화
 4. 편집과정에 있어서의 저자의 부정확함에 대한 가정
 5. 성경본문의 명료성을 부인함
- VII. 결론